

## 구하와 한암의 관계 검토\*

이원석\*\*

• 목 차 •

- I. 머리말
- II. 통도사에서 구하와 한암
- III. 영축산의 구하와 오대산의 한암
- IV. 구하·한암과 상좌·제자
- V. 맺음말

---

\* 본 논문은 2021년 10월 28일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서울)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105-142.

## 한글요약

본고는 1900~1910년까지의 전기와 1926~1951년의 후기로 대별하여 구하 천보(九河天輔, 1872~1965)와 한암 중원(漢巖重遠, 1876~1951) 및 그 상좌나 제자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전기에 통도사의 실력자로 부상하던 구하는 1900-02년 백운암이나 범어사에 머문 한암을 인지하였다. 한암도 1900년에 이미 구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00년 성해를 법사로 삼은 구하는 1904.5년 내원암에서 석담을 법사로 삼은 한암과 사촌 사형제가 되었다. 양자는 법계와 함께 통도사 내원암을 공통요소로 삼았지만, 편지나 한시를 수작하지 않았다. 당시 구하가 만나거나 교류한 서해담·나청호·김경운·진진웅·박한영 역시 한암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한암이 오대산에 머문 후기, 양자의 관계는 보다 진전되었지만, 우호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1929년과 1934년에 한암과 구하는 성해와 석담의 영찬을 주고받았지만, 1931년 한암이 통도사를 방문하였을 적에 구하를 만나지 못하였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나 칩거하던 구하는 1937년 총본산의 건설이나 1941년 조계종의 창립과 관련하여 중앙의 교단에서 다시 활약하였다.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욱은 그 주역이었고, 초대 종정은 한암이었다.

1949년 10월 구하는 조계종 3대 총무원장으로 교정 한암과 만났다. 1944년~1950년 사이 한암은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하에게 안부를 전하였고, 구하도 서한·시문 3편을 보냈지만, 종단에서의 지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구하는 1951년 5월 부산의 묘심사에서 거행된 한암의 49재와 봉도회대-노구로 불참하였지만-로 한암의 법은과 좌탈을 추도하며 환생을 빌었다. 양자와 연결되는 송설우와 윤퇴운도 검토하였다.

반면에 구하와 한암은 각각 오대·영축의 문도와 밀접하였다. 그 대상은 용명·월하·동성·난암·보문·탄허와 자운이었다.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경봉과 한암에 비해 의의나 맛깔이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양자는 근현대 영축·오대 문도의 교류와 근현대 한국 불교계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주제어

구하, 한암, 관계, 영축산, 오대산, 통도사, 상원사, 상좌.

## I. 머리말

영축산 통도사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중원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뚜렷한 불적(佛跡)과 위상을 남긴 대표적 고승이다. 구하는 이른 시기 중앙 교단에 진출하였다. 그는 1910년 원종(圓宗)의 인사 부장을 거쳐 1911년 11월부터 1925년 8월까지 15년간 영축산 통도사의 주지를 역임하는 가운데 1917~18년 30본산연합사무소의 위원장에 올라 전성기를 보냈다.<sup>1)</sup> 당시 46,7세로 교정이나 종정에 해당되는 불교계의 최고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통도사 주지를 사직한 이후 침잠하다 1937년 2월 28일 총본산 건설고문으로 중앙 교단에 돌아온 이래 원로로 활동하였고, 1949년 10월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였다.<sup>2)</sup> 이후 입적할 때까지 영축산의 큰 별이자 호랑이로 통도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다.<sup>3)</sup>

한암은 구하보다 교계의 진출이 늦었지만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그는, 1921~26년 건봉사·봉은사의 조실을 역임하고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란 귀산시를 읊고 1926년 5월 오대산 상원사로 이거한 이후 26년 동안 그[월정사의] 조실로 불출동구하였다.<sup>4)</sup> 그 가운데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에서 7인의 교정 가운데 1인으로 추대되었고, 1935년 송만공 신혜월과 함께 조선불교선종의 종정으로 선출되었으며, 1941~45년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을 거쳐 1948년 대한불교조계종

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2001, pp.147-170.

2) 『불교(신)』 4, 1937.6.1., p.49.; 동국대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p.527.

3)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축산문집』, 영축총림 통도사, 1998, pp.596-619, p.624.; 김광식 엮음, 『자운대율사』, 불광출판사, 2017, p.57, p.59.

4) 이원석,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시기 검토」, 『정토학연구』 28집, 한국정토학회, 2017; \_\_\_\_\_, 「한암스님의 불출동구와 현실관」, 『한국불교학』 92집, 한국불교학회, 2019 참조.

제2대 교정에 올랐다. 그 재임기간은 모두 20년으로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길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상원사를 지켜내고 좌탈하였다.<sup>5)</sup>

구하와 한암은 중앙 교단에서 선후로 활동하였지만, 통도(通度)의 화장(華藏) 세계에서 함께 주석하며 인연을 맺었다. 구하가 통도사를 중심으로 일생을 보낸 반면 한암은 금강산에서 남으로 만행하다 경허 성유(鏡虛惺牛)를 따라 1900~1901년 그 부속암자인 백운암을 거쳐 1904~1910년 그 말사인 내원암에 머물렀다. 여기서 석담 유성(石潭有性, ?~1934)에게 입실한 한암은 성해 남거(聖海 南巨, 1854~1927)를 법사로 맞이한 구하와 사촌 사형제가 되었다.<sup>6)</sup> 이러한 인연은 1951년 5월 8일 부산의 묘심사(妙心寺)에서 열린 한암의 49재를 겸한 봉도식(奉悼式)까지 이어졌다. 그 봉도회의 대표가 바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구하였다.<sup>7)</sup>

본고는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영축산을 상징하는 구하와 오대산을 대표하는 한암의 관계를 불교사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사실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근현대 선교관이나 친화적 교류로 주목되는 경봉과 한암의 경우<sup>8)</sup>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영축산문과 오대산문의 교류는 양자를 벗어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를 대표하는 구하를 제외하고는 두 산문의 관계, 심지어 경봉과 한암의 교류마저도 이해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암의 연구를 확대하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본고는 통도사와 월정사·상원사라는 유력 사찰의 역사

5)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정본 한암일발록』 상, 오대산 월정사, 2010, pp.495-512.

6)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한국불교학』 96집, 한국불교학회, 2020 참조.

7)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하, pp.287-307.; 「고 교정 방한암 대중사의 봉도식과 49재엄수」, 『불교신문』, 1951.5.15.

8) 윤창화,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한암선사연구』, 민족사, 2015; 경봉, 석명정, 『화중연화소식』, 미진사, 1984, pp.20-94.

뿐만 중앙 교단과 지방 교계의 동향이나 그 이면을 이해하거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하의 연구에<sup>9)</sup> 일조하려는 기대가 있다. 이에 필자는 통도사에서나 영축산·오대산에서 구하와 한암의 관계를 1900~1910년과 1926~1951년의 전후기로 대별하여 추적한 다음 각각 상좌·제자와 양자의 직접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변을 고찰하겠다.

## II. 통도사에서의 구하와 한암

여기서는 1900~1910년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기 구하와 한암의 관계를 검토한다. 구하의 초기 자료는 매우 적고 엇갈리기도 한다. 그는 13세인 1884년 천성산 내원암의 주관(主管)에게 출가하였고, 1889년 경월 도일(慶月道一)을 은사로 득도하여 사미계를 받고 ‘천보(天輔)’의 법명을 얻었다.<sup>10)</sup> 수행이력서에 보이는 이력 과정은 1892년 통도사의 해당 치익(海晏致益)에게 『서장』 『도서』 『선요』 『절요』의 사집을, 1894년 예천 용문사의 김혜옹(金慧翁)에게 나아가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의 사교를, 1897년 진주 대원사 박영호(朴永湖[朴映湖])에게 『화엄경』 등 고등과를 수학한 것으로 정리된다. 수계로는 1896년 통

9) 현재 구하는 연보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학계의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의 독립운동」, 『영축총림통도사 근현대불교사 학술자료집』, 영축총림 통도사, 2010; \_\_\_\_\_,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방향과 내용」, 『문학과 종교』 22-4, 한국문화과종교학회, 2017; 최두현,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한국불교학』 101집, 한국불교학회, 2022; 윤균, 「근대불교 종단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구하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22.

10)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596, p.608.; 서남현 편, 『축산 구하대중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상, 영축총림 통도사, 2008, p.712.; 김수아, 위의 논문, p.54.; 윤정광, 『영축산에 달 뜨거든』, 노천문도회, 2014, p.174.

도사에서 표충사의 만하 승림(萬下勝林)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였다.<sup>11)</sup> 다만 비문에 의하면, 그는 용문사에서 용호 혜주(龍湖海珠)에게 수학하였고, 고등과는 박영호[石顛 朴漢永, 1870~1948]가 대원사에서 1899~1901년까지 개최한 대강회에서였다.<sup>12)</sup> 구하가 일대시교를 마치고 통도사로 귀환하며 읊은 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sup>13)</sup> 그 시기는 대략 1900년으로 추정된다.

구하가 성해를 법사로 삼아 ‘구하’라는 법호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구하의 비문이나 통도사 홈페이지에 보이듯, 통도사의 입장은 1896년 구하가 성해에게 구족계를 받아 사법(嗣法)하였다는 것이다.<sup>14)</sup> 한동민·윤청광·김수아는 명확한 근거 없이 1900년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마도 통도사에서 나온 일설로 보인다.<sup>15)</sup> 1904년설은 그의 수행이력서에 보이는 “1904년 통도사 성해 남거 화상의 법맥을 계사(繼嗣)”하였다는<sup>16)</sup> 것이다. 대교과정의 수료 여부와 시기의 적합성 등으로 볼 때 구하가 성해를 법사로 삼은 것은 대체로 1900년설이 상대적으로 합당해 보인다.<sup>17)</sup> 이상에서 구하는 늦어도 1900

11)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609.; 서남현 편, 위의 책, pp.692-693. 단, 그 p.712에 보이는 선살계는 보살계의 오역이다.

12)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609.; 서남현 편, 위의 책, pp.692-693. 이는 1725년 김제 금산사에서 환성 지안(喚醒志安)이 개최한 천명대회(千名大會)를 방불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걸·혜봉,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pp.108-111.

13)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597, p.609.

14) 이는 위에 서술한 수행이력서의 수계사항과 충돌된다.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610. 최근 「한국불교 선각자 구하대중사 <2>」, 『불교신문』 2022.1.25, p.17에 의하면, 구하는 1996년 용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였고, 이해에 성해의 전법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15)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의 독립운동」, pp.11-12.; 윤청광, 앞의 책, p.174.; 김수아, 앞의 논문, p.54.; 『불교신문』, 2002.6.11, p.7.

16) 서남현 편, 앞의 책 상, pp.609-610, pp.712-713.

17)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610. 최근 최두현은 「구하의 통도사 개

년에 성해를 법사로 삼았고, 1904년에 그 공식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구하는 1902.4~04.7월 표충사, 특히 범어사를 왕래하며 강백 혼해 찬윤(混海贊允)에게 교리를 배웠고, 1905년 9월 30일 통도사 법계 선발시험에 응하여 선종의 대법(大法)을 수여 받았다.<sup>18)</sup> 구체적으로 확인된 그의 행적은 1906년 6월 통도사 화엄전에 설립된 명신학교의 학감 취임이다. 이해 일본을 유람하고 귀국한 구하는 강학과 포교를 위해 신식학교를 설립하려는 불교계의 개혁 흐름에 따라 총섭 고산(古山)의 도움을 얻어 명신학교를 설립하고 학감에 취임하였다.<sup>19)</sup> 구하가 명신학교의 학감을 사직한 것은 서해담(徐海曇)을 이은 부교장 이남파(李南坡)의 알력과 함께 원종의 참여와 관련되지만, 시기는 한동민이 주장한 1909년 1월(음력)보다 수행이력서의 5월이 상대적으로 합당해 보인다.<sup>20)</sup>

1908년 3월 6일 각도의 사찰 대표 52명은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원종 종무원을 수립하고 이회광(李晦光)을 대중정으로, 김현암(金玄庵)을 총무부장으로 추대하였다. 원종의 종무원에서 구하는 이회명을 이어 인사부장을 맡았다.<sup>21)</sup> 이를 명신학교의 학감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그

---

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한국불교학』 101집, 2022, p.256, 각주 12에서 『구하역사』를 인용하여 1899년으로 규정하며 이해에 통도사로 귀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박한영의 교학 강습과 수행이력사와 충돌하므로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18) 구하는 1889년 범어사 대성암에서 의룡 체훈(義龍體勛)에게 『장자』 『대학』 古文 등의 외전을 배웠다. 서남현 편, 앞의 책 상, p.693.; 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 인하대출판부, 1999, p.324. 대선사의 품수는 늦어도 1917년(『조선불교총보』 3, 1917.5.20., p.54.)이지만, 1910년설(『중단원로 구하종사 입적』, 『대한불교』, 1965.11.7., p.1.)과 1914년설(서남현 편, 앞의 책 상, p.713.)도 있다.
- 19)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598, p.610.;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의 독립운동」, pp.15-16. 수행이력서에 구하의 학감 취임은 1906년 3월이다. 서남현 편, 앞의 책 상, p.713.
- 20)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pp.17-20.; 서남현 편, 위의 책 상, p.713.

는, 1908년 통도사에 머물며 명신학교의 학감으로 재직하였고, 1909년 5월 9일 학감을 사직한 이후 머지않아 상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종의 인사부장에 취임한 것은 1910년 후반기였다. 이는 각황사의 건립과 관련한 재정문제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가 귀사한 것은 1911년 정월(음력)이었다.<sup>22)</sup> 그렇다면 구하가 서울에 머문 기간은 길어야 1년 6개월, 원종의 인사부장 재임은 반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하가 원종 종무부에서 인사부장으로 활동한 것은 통도사를 벗어나 중앙 교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것과 함께 교단의 핵심 인물과 교류로 주목된다.

당시 구하의 움직임은 서해담과 겹친다. 1908년 11월 당시 명신학교 교장은 윤치오(尹致昨), 학감은 김천보[구하]였고, 서해담은 부교장으로 교사를 겸하였다. 그런데 1909년 2월에는 부교장이 이남파로 바뀌었다. 그는 바로 구하와 알력을 빚은 당사자였다. 명신학교 부교장에서 밀려난 서해담은 1910년 11, 12월에 각황사에서 중앙포교사로 활동하며 이회광 김현암과 함께 각지 승사(僧史)와 사적(事蹟)의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23)</sup> 그 결과가 바로 『조선중사(朝鮮宗史)』의 정리와 함께 1912년에 간행된 『통도사사적(通度寺事蹟)』이다.<sup>24)</sup> 1910년 말을 기준으로 양자는 원종의 종무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911년 정월 통도사로 돌아온 구하는 이듬해 총독부에 설립자로서 명신학교를 인가받았고, 1913년에는 교장이 되었다.<sup>25)</sup> 특히 그는 1911

2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주 조선불교통사』 6, 2010, p.311.

22) 구하의 인사부장에 취임 월일은 수행이력서의 10월 2일과 『대한불교』의 7월 12일이 있다. 그사이 구하는 경성실무학원을 수료하였다고 한다. 서남현 편, 앞의 책 상, p.713.;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610.; 「중단원로 구하중사 입적」, 『대한불교』 1965.11.7, p.1.

23) 『매일신보』 1910.10.18. · 11.29 · 12.22, p.2.

24)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앞의 책 6, p.311.; 서남현 편, 『영축총림통도사 근현대불교사』 상, 영축총림통도사, 2010, pp.199-200.; 김경집,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29집, 한국불교학회, 2001 참조. 단, 수행이력서에 구하의 인사부장 재임은 1910년 10월 2일 ~ 1911년 1월 10일이다.

년 사찰령의 반포를 배경으로 11월 통도사의 주지로 인가된 이래 1925년 8월 사직할 때까지 15년 동안 통도사를 운영하였다.<sup>26)</sup> 그는 사암의 재정을 통합하여 부찰(富刹)의 기반을 마련한 다음 각종 불교혁신, 포교·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의 자금을 지원하였다.<sup>27)</sup> 다만, 그는 일제강점 초기에 전성기를 보낸 관계로 친일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sup>28)</sup> 이상에서 구하는 대략 1909년 후반~1910년을 제외하면 1900~10년 대부분 통도사에 머물렀다.

한편, 1894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금월행림(錦月幸凜)에게 출가한 한암은 1899년 신계사의 보운강회에서 사 집을 배우다<sup>29)</sup> 교학에서 참선으로 전환하고 남행하였다. 그는 10월 무렵 김천의 불령산 청암사 수도암에서 만난 법사 경허를 따라 1903년 여름까지 경남 삼분사를 오가며 정진하였다. 한암이 통도사의 부속암자 백운암에 머문 것은 1차로 1900년 가을, 2차로 1901년 상반기였는데, 전자에서 2차의 오도를 경험하였다. 그가 1903년 해인사의 하안거가 끝난 뒤 북행하자는 경허의 권유를 거절한 것은 질병 때문이었다. 투병은 당시 한암에게 시급한 과제였다.

1904년 봄 한암은 해인사를 떠나 천성산의 내원암으로 향하였다. 그는, 여기서 율사이자 선사로서 풍모를 지닌 석담 유성에게 건당입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언양의 12마지기 법답에서 나오는 도조로 질병을 수습하였다. 내원암에서 ‘조실’로 교학에 종사하여 후일 통도사의 강백

25) 서남현 편,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상, p.713. 이와 달리 한동민은 구하가 1911년에 다시 학갑, 이듬해 교장이 되었다는 비문의 내용을 따랐다.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pp.17-20.

2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앞의 책 상, pp.156-172.; 서남현 편, 위의 책, p.713.

27)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p.599-601, pp.610~612.; 정광호, 앞의 책, p.404.;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의 독립운동」; 김수아 앞의 논문 참조.

28) 임해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pp.128-156.

29) 자현,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 불광출판사, 2020, pp.125-130.

해런 영철을 첫 상좌로 거두는 한편 석담을 비롯하여 퇴운·설우·완해 등과 함께 정진하였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일생패궐』의 기술과 달리 그의 건강은 후일 맹산의 우두암에서 10년 동안 정진할 정도로 회복하였다. 그는 1910년 봄 내원암을 떠나 묘향산으로 향하였다. 통도사 내원암에서 한암이 좌선우교의 선교관을 확립하고 율사를 겸비한 점은 삼학겸수로 주목된다.<sup>30)</sup>

언제부터 구하가 한암을 인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성해는 1892년 통도사의 승통이 되어 사격을 일신하고 선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00년 경허가 통도사 백운암에 이르렀고, 1899년 가을 경허를 따라 만공이 백운암에 머물렀다. 1901년 여름 만공은 여기서 2차 개오하였다.<sup>31)</sup> 당시 구하는 황화각·취운암·장경각에서 수행하거나 기도하며 성해를 보좌하였다.<sup>32)</sup> 즉, 통도사의 실제로 부상하던 구하는 백운암에 머물던 한암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암은 1900년과 1902년 범어사의 안양암과 계명암에서 동안거를 보냈다.<sup>33)</sup> 1902~04년 범어사의 혼해에게 강습한 구하는 스승을 통하여 한암을 알았을 것이다. 결국 구하는 1900년 가을부터 1901년 여름 사이, 늦어도 1902년에는 한암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운수행각 중이던 한암이 통도사의 실력자로 부상하는 구하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0) 이원석, 「한암의 출가 과정과 구도적 출가관」, 『선학』 50집, 한국선학회, 2018, pp.80-95.; \_\_\_\_\_,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참조. 한암이 통도사에서 제대로 중이 되었다거나 통도사를 고향과 같다는 성과의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암문도회·김광식,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2006, pp.170-171.; 월정사·김광식, 『방산굴의 무영수』 상, 2013, 오대산 월정사, pp.122-123.

31) 경허에게는 통도사의 백운암·백련암을 읊은 시 3편이 있다. 경허 성우, 이상하 옮김, 『경허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만공문도회, 『만공법어』, 수덕사 능인선원, 1982, p.306.; 서남현 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상, p.126.

32)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610.

33)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pp.200-201.

양자의 관계는 한암이 내원암에서 거주한 초기 청정비구 석담 유성에게 입실함으로써 밀접해졌다. 석담은 취룡 태일(鶯龍泰逸)의 상좌로 성해의 사제였다. 이에 따라 성해는 한암의 사숙이 되고, 구하·경봉은 한암과 사촌 사형제가 되었다. 한암이 경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문제(門弟)’나 ‘제’로 낮추고 경봉을 ‘형’으로 높인 것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sup>34)</sup> 구하를 ‘대형(大兄)’으로 부르며 안부를 전하였다.<sup>35)</sup> 통도사의 방장 성과도 한암이 경봉·구하와 사촌지간으로 호형호제하였다고 한다.<sup>36)</sup>

내원암에 대한 한암의 애정은 1930년 9월 내원선원의 존폐와 통도사의 내원암 직할 사안을 둘러싼 갈등 가운데 내원선원의 발전을 기원한 점에도 나타난다.<sup>37)</sup> 뿐만아니라 석담과 구하에게도 내원암은 공통분모였다. 현재 내원사의 홈페이지 연혁에 의하면, 석담은 1898년에 이미 내원암에 주석하였고, 1900~10년대에는 수선사(修禪寺)를 창설하여 ‘동국제일선원’을 표방하며 송설우, 이퇴운, 조완해, 방한암 등과 참선하였다. 이후에도 석담은 선사로 정진하였다.<sup>38)</sup> 또한, 1884년 13세의 구하가 출가한 사찰도 바로 내원암이다. 구하는 내원암의 주지도 역임하였다. 그는 한암의 도반이던 이퇴운의 뒤를 이어 1914년 6월에서부터 1916년 3월까지 내원암 주지를 겸직하였고, 해방 직후에도 형식적이지만 내원암 주지를 맡았다가 1948년 겨울(음력)에 사임하였다.<sup>39)</sup>

34) 한암이 경봉에게 보낸 24편의 편지 가운데 ‘弟·門弟’로 쓰지 않은 것은 2편에 불과하고 ‘拜上·拜謝’로 표기하지 않은 것도 1편뿐이었다. 경봉을 형으로 언급한 것은 두 곳이다.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273-332.; 경봉, 역주 석명정, 『화중연화소식』, 1984, pp.20-94.

35)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316-317.

36) 월정사·김광식, 앞의 책 상, p.122.

37)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294-295.; 「내원암문제 도당국에 진정」, 『조선일보』, 1932.4.24.

38)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참조.

구하와 한암의 사이에는 해담 치익이 있다. 해담은 1882년부터 10년 동안 예천 용문사에서 용호 해주에게 내전 각과를 수학하였고, 1880년 통도사에서 만하 승림에게 대소승계를 수지하여 율맥을 이었다.<sup>40)</sup> 이는 구하와 비슷한 과정이다. 구하와 한암이 선종의 대선사에 서품된 1917년 통도사의 법계시험에서 해담은 대교사였다.<sup>41)</sup>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의 승려대회에서 그는 한암과 함께 7인의 교정으로 함께 추대되었다.<sup>42)</sup> 당시 통도사에는 만하 승림에서 비롯된 수계의 유행이나 계율의 강조와 관련하여 만하·해담과 한암의 관계는 유의 되어야 한다.

구하가 원종 총무부에서 활동하고 교유한 승려 가운데 감사 청호 학밀(晴湖學密, 1875~1934)은 한암과도 관련된다. 그는 예천 용문사에서 김혜옹에게 중등과정=사교과정을 수학하였다.<sup>43)</sup> 양자는 30본산 연합회에서도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구하는 1915~16년 30본산 연합회 상치원으로 청호와 함께 일하였고, 구하가 연합회 회장이던 19017~18년에 청호는 감사원과 상치원이었다. 1917년 그는 구하와 일본불교시찰단원으로 도일하였고, 봉은사에서 '조사원기(祖師遠忌)'의 대제(大齋)를 치를 적에 구하도 참석하였다.<sup>44)</sup> 그는 1912~1918년, 1924년~1932년 봉은사 주지,<sup>45)</sup> 1923년 조선불교협성회의 회장, 중앙 설교사 등을 역임하였다.<sup>46)</sup> 구하가 청호의 입적을 주도하여 지은 애사(哀辭)와 만사(輓

3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앞의 책 상, p.249, p.315.;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p.95-96.

40) 해담치익, 『증곡집』, 대원사, 1934, pp.49左~50右.; 「청호학밀」, 『불교신문』, 2008.6.11.

41) 『조선불교총보』 3, 1917.5.20, p.54.

42) 『불교』 56, 1929.2.1., pp.129-130.

43) 「청호학밀」, 『불교신문』, 2008.6.11, p.16.

44) 「조사원기의 대제」, 『매일신보』, 1917.5.6, p.3.

45) 청호의 봉은사 주지역임과 30본산 연합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앞의 책 상, pp.147-177.

46) 문단에서 각주가 없는 것은 이원석,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시기 검토」,

詞)가 『영축문집』에 전한다. 전자는 원종 종무원 시절을 회고하면서 60세에 입적한 청호를 애도하였고, 후자는 시로 추모한 것이다.<sup>47)</sup> 청호는 한암과도 관련이 있다. 청호는 한암이 봉은사의 조실로 주석할 적에 김상숙을 이어 주지를 맡았다. 또한, 한암과 청호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에 708명을 구조한 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암의 오대산 상원사 이거와 관련하여 청호는 한암을 이종욱과 연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sup>48)</sup>

또한, 구하는 원종의 서무부장 경운 원기(擎雲元奇, 1852~1936)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서한을 주고받았다. 1934년 설달(음력) 구하가 김경운에게 연하장을 보내자, 경운은 구하에게 각황사의 일<sup>49)</sup>을 회고하며 답례하였다. 이에 구하는 다시 법체가 늙었지만, 정신은 동자(童子)와 다를 바가 없다거나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와 함께 경성에서 법문의 융성함을 칭송하였다. 이 편지의 말미에 나오는 해련(海蓮) 강사는 바로 한암의 만상좌 오해련으로 양자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주목된다. 그는, 1936년 8월 사경한 금자 『법화경』을 칭송하면서 법체의 강령을 축원하였으나, 경운이 입적한 부고를 받들고 그의 포부와 경력이 옛 부처님이나 조사와 조금도 다름없다고 애도하였다.<sup>50)</sup> 앞서 1927년 경운은 동화사 강원에서 화엄을 배우던 손상좌 조종현(趙宗滋)에게 구하를 만나면 안부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라는 편지를 보냈었다.<sup>51)</sup>

---

pp.158-159.

47)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111, pp.551-552.

48) 이원석,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시기 검토」, pp.158-160, pp.164-165.

49) 김경운은 1915년부터 7년간에 걸쳐 각황사의 명포교사였다. 김경집, 「근대 경운 원기의 교화활동」, 『보조사상』 40집, 보조사상연구원, pp.218-221.

50)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p.491-497, pp.554-555.; 신규탁 편역, 『화엄종주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 경운원기대선사문손회, 2016, pp.279-283. 지금 통도사 정보박물관에 있는 금자 『법화경』은 경운이 1880년 범어사 孫正眞의 화주와 명성황후의 시주로 완성한 것이다. 능화상현(能化尙玄), 「경운대선사와 양처백련사」, 『조선불교총보』 3, 1917.5.20., pp.16-18.

51) 신규탁 편역, 위의 책, pp.86-87.

구하와 경운의 관계는 대원사의 대강회에서 수학한 원종의 고등강사 박한영의 법사라는 점도 있다.<sup>52)</sup> 박한영, 즉 석전 영호(石顛映湖)는 은사 경운과 함께 1916년 인사동의 선종중앙포교당에서 함께 설법한 적도 있다.<sup>53)</sup> 그런데 박한영이 1893,4년에 머문 금강산 신계사와 건봉사 등은 1899년 7월 한암이 신계사의 보운강회에서 사집과를 수학하다 참선으로 발심하였고, 1923~26년 건봉사의 조실을 지낸 곳이기도 하였다.<sup>54)</sup> 한영은 법사 환응(幻應)과 경운, 그리고 한암과 함께 1929년 선교양종 7인의 교정으로 선출되었다.<sup>55)</sup> 또한, 석전과 함께 경운의 제자인 원종의 교무부장 진진응(陳震應)은 한암이 탄허에게 교리의 강습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암의 만상좌 오해련은 동광 혜두 등과 함께 범어사 불교강원에서 진진응에게 『염송』 『설화』를 수강하였다.<sup>56)</sup> 이도 경운과의 관계 연장으로 보인다. 1936년 2월(음력) 한암이 은근히 불출산을 거론하며 특정 요청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낸 바가 바로 진진응이다.<sup>57)</sup> 석전은 해방 직후 한암을 이어 교정이 되었다가 1948년 입적하였고, 그 지위는 다시 한암에게 이어졌다.<sup>58)</sup>

1900~1910년까지 구하와 한암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법계와 내원암

52) 서남현 편, 『축산 구하대중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상, pp.692-693, pp.712-713.

53) 『매일신보』, 1916.12.28, p.2.

54) 종결·혜방, 앞의 책, pp.94-95.;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498-499.

55) 7인의 교정 가운데 한암이 유일하게 선종 계열이었다. 『불교』 56, 1929.2.1., pp.129-130.; 다카하시 도루(高橋 亨), 『李朝佛敎』, 國書刊行會, 1973, p.905.

56) 김광식, 『탄허 대중사』, 탄허불교문화재단, 2010, pp.47-50.; 김경집 「근대 경운 원기의 교화활동」, pp.205-206.; 동광 혜두, 김용환 외 편집, 『청산은 흐르지 않고 물은 멀리 흐르네』, 정우서적, 2013, p.54.

57)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340-341.

58)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위의 책 상, pp.511-512.; 동국대 석림동문회, 앞의 책, p.518, p.525.

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갖추었지만 성과의 발언과 달리 친밀하게 교류하지 않은 것 같다. 『축산문집』과 『한암일발록』에 구하와 한암이 한시를 수작하거나 서한을 주고받은 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양자가 통도본말사라는 사격과 영축문도에서 처한 상대적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Ⅲ. 영축산의 구하와 오대산의 한암

1911년부터 통도사의 주지에 취임한 구하는 1925년 8월 주지분규로 인하여 사직하고 칩거하였다.<sup>59)</sup> 구하가 언제 활동을 재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남 삼본산의 중무협의회에서 원로로서의 활동일 듯하다.<sup>60)</sup> 그는 1934~1938년 사이 한글번역불사를 위해 해인사에 설치한 해동역경원의 원장=도감(都監)을,<sup>61)</sup> 1937년에는 장로(長老), 1939~40년에는 중무협회의의 고문을 맡았다.<sup>62)</sup> 후술하듯이, 1942년 6월 13일 경남 삼본산의 중건승려 17명을 거느리고 일본불교를 시찰하는 단장으로 3차 도일하였다.

구하가 중앙의 교단에 재등장한 것은 1937년 2, 3월 총본산 [상임]고

59) 『불교』 16, 1925.10.1., p.44.;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pp.74-75.

60) 1934년 9월 해인사에서 처음 열린 경남삼본산의 중무협회의의 날자는 엇갈린다. 경봉은 29일, 『경북불교』는 19일로 전한다.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앞의 책, p.170.; 『경북불교』 6, 1936.12.1., p.1.

61) 원장=도감은 1인 체제가 아니라 많을 때 8명이었고, 한글 역경사는 범어사의 허영호였다. 『불교(신)』1의 광고; 『불교시보』 4, 1936.1.1., p.4.; 『불교(신)』 8, 1937.11.1., p.58.; 서남현,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하, p.1021.;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대각사상』 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pp.31-32.

62) 『불교(신)』 8, 1937.11.1., pp.34-40.; 『불교(신)』 20, 1939.1.1의 근하신년 광고 참조.

문, 건설 위원으로서였다. 누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4월 1일 경성에 올라온 이후 총본산 건설의 주도자 이종욱, 특히 범어사의 김경산(金擎山)과 짝을 이루어 이듬해 1월 초까지 태고사의 건축을 위해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을 살피고 목재상을 방문하는 한편 건설비의 수납을 위해 통도사와 범어사, 봉은사뿐만 아니라 호남과 평양 등으로 바삐 움직였다. 이러한 그의 열성은 불도들에게 칭송될 정도였다.<sup>63)</sup> 조계종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듬해인 1942년에 6인의 총무고문 가운데 1인이 되었다.<sup>64)</sup> 해방 이후 중앙교무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었고,<sup>65)</sup> 이후 좌우의 대립을 배경으로 불교계도 신생 중앙 총무원과 혁신계가 분열하는 가운데 1947년 5월 불교혁신총연맹에서 발전한 조선불교 총본원의 총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교단과 혁신 양파의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1949년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였다.<sup>66)</sup>

한편, 1910년 봄 북행한 한암은 묘향산의 내원암과 금선대를 거쳐 1911년 가을부터 평안남도 맹산군의 우두암에서 10년 동안 정진하는 가운데 1912년 봄 최종 오도하였다. 이후 그는, 1921~1926년 건봉사와 봉은사의 조실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단에 등장하였다. 1926년 5월 오대산 상원사로 이거한 다음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좌탈할 때까지 26년 동안 불출동구하였다. 특히 1929년~1945년, 1949년~1951년까지 교정과 중정에 머물렀다. 실로 그는 1930~40년대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는 양자가 영축산과 오대산에 주석하던 무렵인 1926~1951년

63) 「교계소식」, 『불교(신)』 3-10, 1937.5.1.~1938.2.1.; 『불교시보』 27, 1937.10.1., p.7.; 「京城에 總本山創立코저 佛敎의 社會化에 진출」, 『동아일보』, 1938.10.23.; 「구하천보」, 『불교신문』, 2008.5.14, p.16.

64)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pp.127-128.

65) 동국대 석림동문회, 앞의 책, p.518.

66)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pp.249-334.; 서남현 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불교사』 상, pp.218-252, pp.258-277.

의 관계를 검토하겠다. 1927년 12월 29일(음력) 구하의 범사 성해가 입적하였다. 경봉은 1929년 2월(음력)에 성해의 영정 봉안을 설계하며 한암에게 은사의 영찬을 요청하였다. 한암은 통도사로 돌아가서 찬술할 계획이었지만 경봉의 독촉으로 7월(음력)에 완성하여 보냈다. 이는 9월 권세창이 그리기 시작한 진영에 더해졌다.<sup>67)</sup>

부지런히 삼보 수호하기를  
 일편단심이었네.  
 조사(祖師)의 뜻 참구하여  
 고금(古今)을 꿰뚫었네.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밝은 달은 흥금일세.  
 영축산은 높고  
 낙동강은 깊도다.<sup>68)</sup>

한암의 성해 영찬은 의견상 경봉의 부탁으로 찬술된 것이지만, 구하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같은 해 7월 15일(양력) 구하는 경봉과 통도사를 주제로 시를 수작하고 있었다.<sup>69)</sup> 당시 구하가 주지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성해에서 월하로 이어지는 통도사의 법계에서 구하가 범사 성해의 영찬을 경봉에게 임의로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경봉도 ‘형주(兄主)’ 구하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하의 「석담대선사영찬」은 그 반증으로 추정된다.

1934년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한암의 은사 석담은 70대 중반의 나이

67) 경봉은 영찬의 ‘胸襟’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한암의 해명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282-291.;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삼소굴일지』, 극락호국선원, 2014, pp.81-82.; 경봉, 석명정, 앞의 책, pp.30-40.

68)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위의 책 상, pp.285-286.;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위의 책, pp.81-82.

69)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위의 책, pp.76-77.

로 입적하였다.<sup>70)</sup> 구하는 사숙이자 한암의 법사인 석담을 ‘대선사’로 추모하였다. 이는 법계와 함께 내원암이라는 공통요소 외에도 한암 「성해 대화상영찬」과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양자는 법사와 사숙의 영찬을 주고받은 셈이다.

70년 전의 내가 바로 그대요,  
70년 뒤의 그대가 바로 나이니,  
그대와 나는 본래 물과 달이 아니고 무엇이요.  
맑은 산 위에는 물과 백초(百草) 있건만,  
산 위에 물이 없다면 그 풀도 없으리라.  
한 길의 연못 스님이 한 번 지나가니,  
광활한 바다에 갈매기 밝고 천지가 가볍도다.<sup>71)</sup>

여기에 보이는 전반부 두 구절은 이정귀(李廷龜)의 「서산대사묘비명」에 나오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휴정이 묘향산 원적암에서 자신의 영정 뒷면에 자찬한 것이 바로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이다.<sup>72)</sup> ‘八十’을 ‘七十’으로 수정한 것은 석담이 70대 중반에 입적하였기 때문이다. 물과 달, 바다와 천지도 불도를 상징하고, ‘그대’와 ‘나’는 중의어로 ‘부처님’과 ‘석담’이자 ‘석담’과 ‘구하’이기도 하다. 한암의 성해 영찬에 대응하는 구하의 석담 영찬은 불법의 진리를 체득한 길이 자신과 같았고 어찌면 내원암에 있던 석담이 구하를 보살폈을지도 모름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1931년 10월 초에 한암은 경주의 불국사를 경유하여 통도사를 방문하였다. 이는 ‘불출산’을 서원한 한암이 1926년 상원사로 이거

70)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pp.202-203.

71) 이는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p.585-586의 원문을 다듬은 것이다.

72) 이정귀, 「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명」, 『월사집2』 45, 민족문화추진회, 1991, p.239 上左.

한 다음 처음으로 오대산을 나선 것이다. 당시에 한암은 10월 4~6일(양력) 통도사의 비로암에 유숙하며 경봉과 법담을 나누었다.<sup>73)</sup> 사실 통도사 측은 경봉을 통하여 한암의 통도사 귀환을 자주 요청하였다. 이에 불응하던 한암이 통도사를 방문한 것은 법사 석담에 대한 마지막 문안으로 추정된다.<sup>74)</sup>

그런데, 당시에 구하가 한암을 만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암 『한암일발록』과 경봉의 『삼소굴일지』에는 양자의 대면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하가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1931년 구하는 양력 5월에 여의봉(如意峰)의 원유회(園遊會)에 경봉 등과 함께 참석한 것이 유일하고, 이듬해 회갑을 맞이한 다음 4월 17일(음력)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났다.<sup>75)</sup> 그때는 구하가 통도사의 주지를 사직하고 만 6년이 지난 즈음으로, 그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때가 아닌가 싶다. 비로암에 이틀을 묶은 한암도 경봉이 준비한 선물도 받지 않고 급하게 통도사를 떠났다.<sup>76)</sup> 여기에서 구하가 한암을 만났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1937년 총본산의 건설, 1941년 조계종의 창설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해진다. 월정사 회주 현해는 불출동구하던 한암이 3회에 걸쳐 산문을 나섰는데, 그 가운데 2회가 구하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계종 창설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종욱은 1941년 한암을 모시고 통도사로 가서 구하를 만나 협조를 얻었고, 해방 이후 혜화전문학교를 동국대로 전환할 적에도 한암을 모시고 가서 구하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sup>77)</sup> 현해의 주장은 현재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지만,

73) 한암대중사범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507.; 경봉대선사, 석명정역주, 앞의 책, pp.130-133.

74)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pp.208-209.

75)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앞의 책, pp.124-125, p.148.; 축산문집간행위원회, 『금강산유기』, 영축총림 통도사, 1998, pp.5-6, p.29.

76)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위의 책, p.133.

양자의 관계와 통도사의 재정 기여를 보여준다.

사실 일제강점기 통도사는 1등급지로 재정 상태가 가장 양호하였다. 이는 1913년 주지 구하가 단행한 재정통합운영과 무관하지 않았다.<sup>78)</sup>

또한, 총본산 건설과 관련된 대고사의 건립 재정 10만 원 가운데 통도사는 가장 많은 14,834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sup>79)</sup> 구하가 총본산 [상임]고문이나 건설위원을 맡은 것도 사실 통도사의 재정적 기여와 관련된다. 1941년 조계종이 출범하고 한암이 초대 종정에 취임할 적에 총본산 건설자 이종욱<sup>80)</sup>이 총무총장에 임명되었고,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박원찬(朴圓讚)이 재정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듬해 구하는 6인의 총무고문 가운데 1인이 되었다.<sup>81)</sup> 이상도 조계종의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초대 교정 박한영이 1948년 입적하자 다시 2대 교정이 된 한암의 조계종 체제에서 12월 박원찬은 제2대 총무원장이 되었다. 이는 좌우의 분열과 신교권세력과 혁신세력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 무능력과 함께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1949년 9월 29일 유엽, 한보순, 장도환, 최범술 등 우파 승려 40여명이 총무원에 난입하여 총무원장 박원찬을 감금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 이들은 좌익투쟁을 빌

77) 한암문도회·김광식,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pp.194-195.

78) 삼보학회, 「교유편년」·「경제편년」, 『한국근세불교백년사』 2·3, 1994, pp.17-25, pp.13-15.; 정광호, 앞의 책, p.404.

79) 박희승, 『지암 이종욱』, 조계종출판사, 2011, p.166. 2012년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통도 본말사는 가장 많은 14,847원을 출연하였다. 『불교신문』, 2012.9.1, p.7.

80) 박희승, 위의 책, pp.135-193.; 김광식, 「조선불교조계종과 이종욱」,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참조. 본고와 관련하여 구하와 이종욱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지면 관계로 줄인다.

81) 박원찬은 취임 소감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성심껏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출의 완급 조절과 절약을 언급하며 협심호조를 강조하였다. 『불교(신)』 31, 1941.12.1., p.11.; 『불교시보』 78, 1942.1.15., p.4.; 김광식, 『자운대율사』, p.479.

미로 각황사의 부지 매각을 핑계로 삼아 중립적인 박원찬마저 배격하고 종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이에 한암은 10월 10일 교무회의의장 박기중(郭基琮)에게 청정자비와 대화로 해결하라는 특명서를 내렸다.<sup>82)</sup> 그 결과 1949년 10월 박원찬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구하가 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혁신계를 포함한 총무원이 꾸러졌다. 이는 기존의 교단세력을 통제하는 동시에 혁신인사를 포용하고 교도제 등의 불교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구하는 불교혁신운동에도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원로였던 관계로 문제 해결의 적임자였다.<sup>83)</sup>

이를 전후하여 구하가 한암에게 보내는 한 편의 편지와 한시 2수가 『영축문집』에 전한다. 그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1947년의 편지이다. 동안거가 끝난 2월 2일(음력) 상원사는 화재로 법당과 요사채를 잃었다.<sup>84)</sup> 이에 구하는 한암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다. 여기서 구하는 상원사의 화재를 호법신이 낚은 상원사의 전각을 혁신하고 단월의 작복(作福)의 기회 제공으로 해석하였다.<sup>85)</sup>

두 편의 한시는 한암의 2대 조계종 교정 재임과 관련된다. 1950년 봄 총무원장 구하가 부장들과 사서를 대동하고 오대산 상원사로 종정 한암에게 인사차 들렀다가 지은 시이다. “여러 스님 임무 띠고 한암 종정 방문하니, 상원사 정원의 보리수에도 봄이 왔네. 교학의 바다는 파도쳐 정해진 바 없지만, 가을엔 마땅히 몸을 감출 줄 알겠네.”<sup>86)</sup>

다른 시는 한암이 상원사를 방문한 신임 총무원 간부들에게 법구를

82) 「대회소집을 특명」, 『불교신보』, 1949.10.5.;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위의 책 하, pp.319-320.

83) 이듬해 6월 교무회의는 유엽, 최범술 등의 승적을 박탈하였다. 이상, 서남원 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상, pp.275-277.;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앞의 책, pp.76-77.; 동국대 석림동문회, 앞의 책, p.527.

84)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위의 책 상, pp.323-324, p.511.

85)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504.

86)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74.

내리자, 구하가 회답한 시이다. 여기에서 구하는 종정 한암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다. “천 길 나는 봉황 굽주림 두려워 앓건만, 새우 잡는 갈매기 성난 파도 노리네. 새우 생각 버리지 못한 갈매기 모래톱에 서자, 수많은 초파리 날개 속에 숨어드네.”<sup>87)</sup>

구하의 두 시가 『영축문집』에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사실 한암이 구하에게 보내는 편지나 한시는 『한암일발록』에 현전하지 않는다. 다만, 1944년 3월(음력) 그가 경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하 대형에게 황망하여 별도의 편지를 보내지 못하오니 나를 위하여 문안을 올리시게.”라는<sup>88)</sup> 내용이 전할 뿐이다. 이는 종정 한암이 경봉을 통하여 구하에게 전하는 안부였다.

1949년 봄 한암은 불출동구의 서원을 어기고 고향처럼 여기던 통도사로의 이거를 고뇌하였다. 당시 오대산의 적멸보궁에는 공비가 출현하는 등 시대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예지에 밝았던 탄허는 한암을 설득하며 통도사 이거를 위해 남행하였고, 마침 주지가 된 경봉은 해동수도원의 종주로 한암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암이 고사하고 탄허를 추천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다.<sup>89)</sup> 여기에도 구하의 견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상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암이 그대로 상원사에 머문 것과 달리 구하는 조계종 총무원을 부산의 대각사로 옮기고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구하가 1950년 11월 21일 총무원장 명의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피해 상황조사보고의 건」을 발송하였고, 1951년 10월 15일 총무원 주관의 법계시험을 주관하거나 전국 교립 중학교 교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87)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90.

88)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316-317.

89) 한암대중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위의 책 상, pp.306-307, p.512.; 한암문도회·김광식, 앞의 책, pp.55-56, pp.85-86, pp.170-171, p.279.; 안동성, 『보기출발록』, 을지문화사, 1990, pp.87-88.; 월정사·김광식, 앞의 책 상, p.278.;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앞의 책, p.348.

20일 차기 교정 송만암이 선출되기 전까지 교정서리로 활동하였다. 이는 11월 24일 중앙총무원장에 이종욱이 선출될 때까지 이어졌다.<sup>90)</sup> 이는 구하가 중앙 교단에서 활동한 대미였다.

1951년 3월 22일 상원사의 방화를 온몸으로 저지하던 한암은 상원사에서 좌탈하였다. 당시 한암의 범구는 희찬 등에 의해 임시로 수습되었고, 5월 8일 부산 토성동 묘심사에서 49재와 함께 추도식이 공식적으로 봉행되었다.<sup>91)</sup> 구하는 바로 봉도식의 대표회장이었지만 80세의 노구인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권상로가 대독한 봉도문에서 그는 한국 전쟁의 비극에 더해진 한암의 원적을 조문하며 생사좌당(生死坐當)의 법은(法恩)을 기렸고, 선지식 한암을 추도하는 동시에 그의 환생을 빌었다.<sup>92)</sup>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한암의 좌탈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이다.

구하와 한암의 사이에 있는 통도사의 승려로는 송설우가 있다. 구하의 문집에는 1926년 설우의 통도사 주지 진산을 읊은 「송설우신임주지 축하」가 전해진다.<sup>93)</sup> 설우는 원래 경허에게 참선을 배우거나 내원암에서 석담, 퇴운, 완해 등과 함께 정진한 한암의 도반으로 교학과 함께 선사이자 율사의 풍모를 지닌 청정비구였다. 구하를 이어 주지가 된 그는 본말사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백용성을 맞이하여 통도사의 참선 중흥을 도모하였다. 주지 설우는 한암이 교정으로 추대된 1929년 1월 조선불교 선교양종승려대회에서 중헌과 각종 법규의 제정위원이었다.<sup>94)</sup> 한암은 1939년 통도사 주지를 마치고 내원암에 머문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우형주’에게 안부를 전한다. 당시에 석우도 내원암에 주

90) 서남현 편, 『영축총림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상, p.280.; 「김구하 총무원장 문헌 소개」, 『불교닷컴』, 2020.10.22.; 「한국불교 선각자 구하대종사 <9>」, 『불교신문』, 2022.3.29, p.19.

91) 당시 총무원이 있던 부산의 대각사에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사 연구회, 앞의 책, p.77.

92)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하, pp.287-289, p.305, p.317.

93)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150.

94) 『불교』 56, 1929.2.1., pp.129-130.

석하고 있었다.<sup>95)</sup>

구하와 한암을 연결하는 스님으로 직지사의 불사를 주도한 퇴운 원일(退雲圓日, 1877~1939)이 있다. 퇴운은 해인사 우송(友松)의 상좌로 제산 정원(霽山淨圓, 1862~1930)의 사제였다. 양자는 모두 근대 직지사의 사격을 높인 고승이었다. 구하는 회갑을 맞이한 퇴운에 대해 법력의 광대함과 계율의 준수를 일컫고 높은 지절(志節)이 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칭송하였다.<sup>96)</sup> 해인사 퇴설선원에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6차례 안거한 한암은 원주였던 제산을 대면하였고,<sup>97)</sup> 그를 통하여 퇴운도 알았을 것이다. 한암의 찬술로 1943년 직지사에 세워진 양자의 비문은 상원사의 회상에서 인정을 받은 제산의 상좌 탄옹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sup>98)</sup>

#### IV. 구하·한암과 상좌·제자

구하와 한암의 상좌나 제자들이 교차하여 양자와 맺은 관계는 구하와 한암의 교류를 뒷받침한다. 용명 성관(龍溟聲觀)은 구하·한암과 인연이 깊다. 1923년 18세에 송광사 삼일암에서 출가한 그는 1925년 가을

95) 한암대중사범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상, pp.310-311.;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pp.205-211.

96) 윤퇴운의 회갑은 1937년 3월 26일이었다.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p.423-424.; 『불교(신)』 6, 1937.9.1., p.45.; 『불교시보』, 1937.7.1, p.7.

97) 제산은 그사이 9회의 안거 가운데 7회가 원주, 1회가 열중이었다. 또한 그는 1907년 하안거에서 지전으로 한암의 법사 석담[열중]과 정진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근대 선원 방함록』,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6, pp.13-55.

98) 관응대중사문도회, 『황악직지록』, 황악산 중암, 2018, pp.384-385, p.399.; 한암문도회·김광식,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p.62, pp.76-78, p.99, pp.129-130, p.271.

봉은사에서 한암을 은사[친교사]로 삼았는데, 성관은 그때 한암에게 받은 법명이다.<sup>99)</sup> 그는 을축년 홍수와 관련된 민간의 사정을 살펴보는 행각이나 1926년 2월초에 수도산 봉은사를 떠나 오대산 상원사로 이거하는 한암의 시자였다.<sup>100)</sup> 선사였던 그가 통도사와 맺은 인연은 1928년 가을에서 1930년 봄까지 통도사 강원의 수학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통도사 강백은 한암의 만상좌 오해련이었다. 그는, 해련을 통해 한암이 석담에게 물려받은 법답의 도조로 강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1931년 여름 이후로 불영사를 거쳐 상원사·대승사·화과원·불국사·백율사·고은사를 거쳐 3년 만에 통도사로 돌아왔다.<sup>101)</sup>

법호인 용명은 구하에게 건당하며 받은 것이다.<sup>102)</sup> 그러나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1934년 통도사로 귀환한 조용명은 통도중학을 주창하여 만들고 해련과 함께 교학을 병행하였다.<sup>103)</sup> 당시 조용명은 구하가 머물던 통도사 보광전 뒷방에서 장경을 열람하였다. 그것은 “그만 돌아다니고 여기 가만히 있게나.”하는 구하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들끓는 혈기로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일으킨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학문, 즉 일본의 유학을 결심하는 계기였다. 그는 1년 정도의 유학 준비과정을 거쳐 1935년 일본 교토의 임제학원[대학]으로 유학하였다.<sup>104)</sup> 바로 이 무렵에 조용명은 구하에게 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99) 조용명, 「노사의 운수시절」, 『불광』 58·59·60·61, 1979.8·9·10·11 참조.

100) 이원석,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시기 검토」, pp.172-177.

101) 조용명, 「노사의 운수시절」, 『불광』 62·63·72, 1979.12·1980.1·10;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앞의 책, pp.65-72.

102)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위의 책, p.58.

103) 용명이 1930년 봄에 통도중학을 주창하여 만들었다는 회고는 뒤에 '1930년대'로 수정되었다. 통도중학의 개교는 1934년 4월 1일이다. 조용명, 「노사의 운수시절」, 『불광』 62·63·72, 1979.12·1980.1·10;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앞의 책, p.72.; 정광호, 앞의 책, p.278.

104) 조용명, 「노사의 운수시절」, 『불광』 63·72, 1980.1·10; 선우도량 한

통도중학의 설립은 물론이고 일본 유학도 구하의 승인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1930년 전후 통도사의 일본 유학은 유력 승려의 상좌가 우선적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sup>105)</sup>

『축산문집』에 전하는 「조용명에게 주는 명훈(銘訓)」도 바로 이와 관련된 글로 추정된다. 다소 길지만, 저간의 사정과 부합하기 때문에 인용한다. 아마도 이 글은 구하가 혈기방강한 용명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건당과 관련하여 범호를 내리면서 준 글이 아닌가 싶다.

대저 順逆의 忍辱을 옷으로 삼고 事理의 견고함을 음식으로 삼으며 善惡의 모험을 집으로 삼으면, 千萬事에 있어서 성취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나방은 불인 줄을 모르고 찾아 좋아하다가 마침내 불에 타서 죽고, 젊은 나이에 양을 헤아리지 않고 맛에 취하다가 결국 진흙탕에 빠져 이름을 잃는다. 자신의 도량을 알고 행해야 하니,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難事가 없을 것이다. 뛰어난 재주의 말은 채찍질하는 그림자의 채찍만으로도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새기노니 또한 명심할지이다.<sup>106)</sup>

사실 용명은 기질적 측면과 1931년 불영사의 분란 등으로 한암과 거리가 생겼다. 이러한 점도 그가 구하에게 건당한 하나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이후로 용명은 오대산문보다 주로 영축산문에서 활동하였다.<sup>107)</sup> 한암이 좌탈한 다음 1951년 부산 묘심사에서 열린 49재를 겸한 봉도식에서 그는 상주로서 해동중학교의 학생을 도열시키고 조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sup>108)</sup>

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앞의 책, p.72.

105) 다수의 일본 유학생의 파견은 구하의 공적이었다. 정광호, 앞의 책, pp.277-278.; 강석주 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p.124.;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600.

106)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위의 책, p.595.

107)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앞의 책, pp.77-88.

108) 당시 조용명은 해동중고교의 이사장이었다. 「교 고정 방한암 대중사의 봉도식과 49재엄수」, 『대한불교』, 1951.5.15.;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

구하를 사법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9대 종정과 16대 총무원장을 역임<sup>109)</sup>한 노천 월하(老天月下, 1915~2003)도 한암의 회상에서 정진하였다. 보경과 설산의 회고에 의하면, 일제강점말기 효봉·고암·서옹·탄옹·지월·자운·월하 등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 상원사에서 정진하였다. 특히 보경은 월하가 상원사에서 서너 철 동안 참선하였다고 구술하였다.<sup>110)</sup> 다만, 그 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설산은 17세인 1936년 상원사의 강원도삼본사연합 승려수련소에 입소, 수료한 다음 3,4년을 더 머물렀다고 회고한다.<sup>111)</sup> 그렇다면 월하가 상원사에서 참선한 것은 1936~1940년, 즉 1941년 이전으로 보인다. 1940년 월하가 한암의 회상에서 동안거와 하안거에 들었다는 견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기에 구하의 명이 있었던 점은 주목된다.<sup>112)</sup>

『영축문집』에는 구하가 13일 연락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면서 읊은 「慶南三本寺中堅十六人渡日視察詩」가 전한다. 그 서언에 의하면, 경남도청 학무과 종교계는 통도본말사 5명·해인본말사 6명·범어본말사 5명의 중견승려를 선발하고 경남도청의 인솔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으로 된 일본불교시찰단을 꾸렸다. 그 목적은 조선불교의 개혁을 위한 것이고, 일정은 대략 20일이다. 그 단장이 바로 구하였다.<sup>113)</sup> 다만, 시찰단의 출발 연월은 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봉의 『삼소굴일지』 1942년 6월 11일자에 구하가 일본 시찰을 떠나자 신평에서 전송하였다

---

대사연구회, 위의 책, pp.77-88.

109) 동국대 석림동문회, 앞의 책, p.591, p.651.; 「16대 총무원장 월하스님」 상하, 『법보신문』, 2019.4.29. · 6.3.

110) 한암문도회·김광식, 앞의 책, p.76, p.129.

111) 실제로 그가 승려수련소에서 교육받은 것은 1939~1940년이다. 한암문도회·김광식, 앞의 책, p.134.; 박설산, 『뚜껑 없는 역사책』, 삼장, 1994, pp.165-199.; 이원석, 「강원도 삼본사 수련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불교학』 98집, 한국불교학회. 2021, pp.162-163.

112) 윤청광, 앞의 책, p.177.

113)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73.

는 짚막한 기록이 있다.<sup>114)</sup> 그렇다면, 구하가 경남 삼본사의 불교시찰단을 거느리고 도일한 것은 1942년 6월 13일이다.<sup>115)</sup>

구하의 일본불교 시찰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종묵 난암(宗默暖庵, 1893~1983)이다. 그는, 1929년 월정사에서 출가한 한암의 상좌로 1935년에 도일하였고, 1938년 교토의 임제학원에 유학하고, 그 연구과에서 불교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교토 동복사(東福寺) 내의 만수사(萬壽寺)에 기거하며 포교와 두타행을 펼쳤고, 1939년 경도불교유학생회인 수심회(修心會)의 의장을 거쳐 이듬해에는 만수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후로 난암은 제일 교포사회, 특히 조총련계에서 불교계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 성장하였다.<sup>116)</sup>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 때까지 임제학원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교토의 불교를 시찰하는 불교 인사는 대부분 난암의 신세를 졌다. 당시 1937년 임제학원으로 유학한 서용도 난암의 관계를 통한 것이었고, 대동아전쟁기 허몽초의 상좌 화산의 임제학원 유학에도 난암의 도움이 있었다.<sup>117)</sup> 구하에 앞서 경봉도 1941년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일본 불교를 시찰하였다. 난암은 학인 10여 명을 거느리고 도쿄에 도착한 경봉 등을 환영하며 만수사로 맞이하였다. 경봉은 만수사에 머물며 묘심사(妙心寺)·청수사(淸水寺)·동서본원사(東西本願寺)·동복사(東福寺)·나라의 동대사(東大寺) 등을 시찰하였고, 교토를 떠날 적에도 난암은 역

114) 경봉대선사, 석명정 역주, 앞의 책, p.237.

115) 다만, 출발일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이 가능한 자료도 있다. 구하의 시찰단을 모범사례로 평가한 해령(海靈)의 「경남삼본사시찰상」, 『불교(신)』 37, pp.27-28이 1942년 6월 1일에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시찰단의 출발은 그 이전이어야 한다.

116) 『불교시보』 52, 1939.11.1., pp.15-16.; 원영상, 「난암 유종묵의 수행 교화와 일본행적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불교학』 79집, 한국불교학회, 2016 참조.

117) 이와 관련하여 1935년 조용명과 서용이 임제학원으로 유학한 것은 흥미롭다. 조환기 엮음, 『참사람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백양사, 2004, pp.310-314.; 한암문도회·김광식, 앞의 책, pp.98-99.

전까지 와서 환송하였다.<sup>118)</sup>

특히 난암은 5촌 사숙에 해당되는 구하에게는 보다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경남 삼본산의 일본불교 시찰단은 난암의 안내로 만수사에서 점심을 먹고 경도의 사찰을 시찰하였다. 구하는 그 감흥을 「경도 만수사에서 점심을 먹고」로 읊었다.<sup>119)</sup> “길 가운데 우뚝 선 유종묵 선사, 우리 대중을 위해 불문으로 안내하네. 경도의 풍물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만사가 모두 사람 탓이란 말 사실이로다!”<sup>120)</sup>

구하는 난암을 높이 평가하였다. 구하는 「벽에 쓴 난암선사의 시에 화답함」에서 심신의 활발함과 뛰어난 설법, 대중 구제의 진담 등은 고금의 현철을 능가한다고 칭송하였다. 이는 경봉이 난암과 수작하며 교토에서 만난 회포와 불법을 노래하거나, 그리움과 만남, 향수를 참선수행이나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과 달랐다.<sup>121)</sup> “심신이 활발하여 푸른 하늘 올라가, 기막힌 설법 구름을 연꽃으로 바꾸도다. 세상 제도한 진담 누군들 존경하지 않으랴, 고금의 현철들 모두 일깨웠다네.”<sup>122)</sup>

1942년 12월 난암은 입국 하였지만 구하와 경봉을 만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입국목적은 강원도 사찰들의 순회강연이었기 때문이다.<sup>123)</sup> 그렇지만, 해방 직후 구하·경봉의 혁신운동과 관련하여 난암의 관계는 유의될 여지가 있다.

118) 당시 안내는 백양사의 이상순(李尙純, 서용)이었고, 시공(侍供)은 월정사의 강상균(姜祥均)이었다.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앞의 책, pp.212-223.

119) 동일한 내용이 1937년이라는 설이 있지만(원영상, 앞의 논문, p.333.), 구하는 1937년 총본산 건설 위원으로 매우 바빴고, 경봉의 『삼소굴일지』 1937년 조에 해당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120)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76.

121)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앞의 책, pp.227-228, pp.238-240, pp.249-250, p.264.

122)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133.

123) 『불교시보』 77, 1945.12.15, p.5.

그리고 한암의 상좌 동성은 1946년 3월 은사의 권유로 인심을 살피고 수행하기 위해 남으로 만행하였다. 한암은 동성에게 부처님 참배, 종무소 방문, 조실·주지의 예배, 원로 스님의 인사, 소속 산문과 은사를 고하는 객승의 예절 등을 일일이 가르쳤다. 동성은, 이해 해인사에서 하안거를 보낸 다음 통도사에 이르러 구하의 환영을 받았다. “구하스님께서 대단히 반겨하시며 통도사에서 한 철 나라 하심으로 통도사 내원암에서 동안거를”마쳤다.<sup>124)</sup>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구하가 한암의 상좌 동성을 환대하며 수행시키려는 의도와 통도사 내원암의 불연이 잘 드러나 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당시에 구하는 내원암에 주석하고 있었다.

한암의 제자 보문이나 상좌 탄허도 통도사와 관련이 있다. 한암의 선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보문은 1946년 상원사를 떠나 통도사의 극락암과 내원암에서 공양주나 채공으로 수행하였고, 1947년 가을 내원암에 머물던 성철, 우봉 등과 함께 한국현대 불교사에서 획을 긋는 봉암사 결사에 참가하였다.<sup>125)</sup> 탄허도 구하, 경봉, 벽안과 각별한 정으로 친근하게 지냈다. “당시에 탄허와 경봉은 자주 만나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도 각별한 정이 있었다. 탄허와 구하·벽안이 동국대의 이사로 있을 적이나 종단의 사무를 볼 적에도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는 등의 끈끈한 정이 있었다. 당시에는 ... 문중 관념이 있었던 것이다. 탄허스님은 사적인 자리에서 성과에게 통도문중이라고 발언하였다.”고 한다.<sup>126)</sup>

양자의 네트워크를 조금 넓혀보면 자운도 포함된다. 1953년 을사 자

124) 안동성, 앞의 책, pp.81-85.

125) 보문은 경봉과도 법문을 주고받았다. 보문문도회·김광식, 『보문선사』, 민족사, 2012, p.25, p.124, pp.197-198, p.206, p.291, p.325, p.364.; 김광식 엮음,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p.203-207.; 석명정 역주, 『삼소굴소식』, 극락선원, 1997, p.364. p.368.

126) 월정사·김광식, 앞의 책 상, p.122, p.128. 탄허는 경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門小侄’로 낮추었다. 석명정 역주, 위의 책, p.276-278.

운이 영암·지관·홍범·인환 등을 거느리고 통도사로 와서 율장을 강론하고 수계법회를 개최하였다. 자운을 초빙한 구하는 손아래의 자운에게 문안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불교계는 자운을 해인사를 중심으로 삼거나 구하와 자운의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한다.<sup>127)</sup> 그렇지만, 자운과 오대산의 인연도 적지 않다. 월정사 아래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에 살았던 자운이 1926년 상원사를 방문한 것이 해인사 혜운 경운(慧雲敬允)에게 출가하는 계기였고, 1933년 동하안거 및 1935~37년 울진 불영사에서 장좌불와로 수행하였으며, 1939년 오대산 적멸보궁에 문수기도로 감응을 받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128)</sup> 1951년 한암의 추도식에서 자운은 독경사(讀經師)였다.<sup>129)</sup> 자운과 비슷한 입장의 영암[박기중]이나 구하와 한암의 손상좌들의 교류는 모두 지면 관계상 줄이고 후일을 기약한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1910년까지의 전기와 1926~1951년의 후기로 대별하여 구하와 한암의 관계를 살펴보며 양자와 공통으로 관련된 상좌 등을 검토하였다. 전기에 있어서, 1908년 후반기에서 1910년을 제외하고 통도사에 주석한 구하는 빠르면 1900년, 늦어도 1902년까지 그 백운암이나 범어사에 머문 한암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한암은 만행하던 1900년에 이미 구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양자는 1900년과 1904,5년 성해

127) 이에 앞서 1937년 자운은 통도사에서 동안거를 보냈고, 1959년 표충사 주지였다. 자운문도회, 「자운대율사스님 행장」, 『자운대율사』,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2000; 김광식 엮음, 『자운대율사』, 앞의 책, p.57, p.72, pp.288-291.

128) 한암문도회·김광식, 앞의 책, p.345.; 자운문도회, 「자운대율사스님 행장」, 위의 책 참조.

129) 한암대중사범어집 편찬위원회, 앞의 책 하, p.317.; 「고 교정 방한암대중사의 봉도식과 49재엄수」, 『불교신문』 1951.5.15.

와 석담을 법사로 삼음으로써 법계로 사촌 사형제가 되었다. 통도사 내 원암은 구하가 입산하고 두 차례 주지를 역임한 곳으로 한암이 1904~1910년까지 선교를 겸한 ‘조실’로 머문 암자였다. 당시 구하의 원종 활동과 관련된 승려로 한암과 연결된 것은 통도사의 서해담을 비롯하여 나창호·김경운·진진응·박한영이 있다. 다만, 법계와 내원암의 공통 기반에도 불구하고 구하와 한암이 편지나 한시를 수작하지 않았다.

후기에 양자의 관계는 전기보다 진전되었다. 한암이 1929년 구하의 법사 성해의 영찬을 짓자, 구하는 1934년 입적한 한암의 법사 석담의 영찬을 지었다. 1931년 10월 한암이 석담을 문안하기 위해 통도사를 방문하였으나 구하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37년 2·3~1941년까지 통도사의 재정 기여와 관련하여 총본산 건설의 고문과 위원, 조계종 총무고문으로 중앙 교단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욱이 총본산 건설과 조계종 창설의 주역이었고, 초대 조계정 종정은 한암이었다. 해방 이후 혁신운동을 지향한 구하는 1949년 10월 3대 총무원장으로 교정 한암과 만났다.

그렇다고 해도 한암은 구하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구하도 종단의 지위나 틀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는 수작한 편지나 한시에도 반영되었다. 1944년 한암이 경봉에 보내는 편지는 ‘兄主’ 구하에게 문안 전달에 그치고 있다. 구하는 1947년 상원사 화재를 계기로 안부를 전하며 단월의 작복 기회로 삼은 편지를 보냈고, 1950년 봄 총무원 부장들을 거느리고 상원사에서 교정 한암을 만날 무렵 한시 2수를 지어 한암의 불법을 높였다. 다만, 1951년 5월 부산 묘심사에서 거행된 한암의 49재와 봉도회에서 대표 구하는 불참하였지만 생사좌당의 법문을 기리며 좌탈을 추도하는 동시에 환생을 빌었다. 양자와 연결되는 송설우와 윤퇴운도 고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구하·한암의 상좌·제자와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여 뒷받침하였다. 한암의 제자로 1934년 구하에게 건당한 다음해 일본 입제

학원으로 유학하고 통도사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한 조용명, 1940년 무렵 구하의 명으로 상원사에서 정진한 월하, 1946년 구하가 반갑게 맞이하며 동안거를 권한 동성, 1942년 6월 구하가 일본시찰에서 만나 높이 평가한 난암, 보문과 탄허의 통도사 주석과 자운 등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는 양자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이다.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경봉과 한암의 경우<sup>130)</sup>에 비해 상대적 의의나 맛깔이 다소 떨어진다. 이는 양자가 영축산과 오대산을 상징하는 대표 인만큼 화학적 결합이나 친밀감을 보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참선과 교학의 방향성이나 이판과 사판의 지향성의 차이도 있다. 물론 시대적 한계와 인간적 덕성도 존재할 것이고, 구하의 은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근현대 영축문도와 오대문도의 친밀함은 색다르다. 물론 여기에는 자장이 창건한 금강계단과 적멸보궁이라는 공통성도 있다. 그러나 구하와 한암의 관계는 그 기원을 열었다는 점에서나 당시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양자의 결합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동란기에 불교계를 움직이는 추동력에 일조하였다. 끝으로 양자의 관계 연구에서 가장 큰 난관인, 초기 사료의 한계와 구하의 칩거 공백을 매울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한다. 한암과 구하의 교학관과 불교사상의 비교나 영축문도와 오대문도의 교류 확대는 후일을 기약한다.

130) 경봉, 석명정, 앞의 책, pp.20-94.; 윤창화,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한암선사연구』, 민족사, 2015, pp.194-228.

## 참고문헌

- 경 봉, 석명정, 『화중연화소식』, 미진사, 1984.
- 경봉대선사, 역주 석명정, 『삼소굴일지』, 극락호국선원, 2014.
- 경허 성우, 이상하 옮김, 『경허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관용대종사 문도회, 『황악일지록』, 황악산 중암, 2018.
- 김광식 엮음,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 김광식 엮음, 『자운대율사』, 불광출판사, 2017).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근대 선원 방함록』,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6.
- 동광 혜두, 김용환 외 편집, 『청산은 흐르지 않고 물은 멀리 흐르네』, 정우서적, 2013.
- 만공문도회, 『만공법어』, 수덕사 능인선원, 1982.
- 보문문도회 · 김광식, 『보문선사』, 민족사, 2012.
- 삼보학회, 『한국근세불교백년사』 2·3, 민족사, 1994.
- 석명정 역주, 『삼소굴소식』, 극락선원, 1997.
- 서남현 편,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상하, 영축총림통도사, 2008.
-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 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 신규택 편역, 『화엄종주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 경운원기대선사문손회, 2016.
- 월정사 김광식 엮음, 『방산굴의 무영수』 상, 오대산 월정사, 2013.
- 이능화, 역주편찬위원회, 『역주 조선불교통사』 6, 동국대출판부, 2010.
- 자운문도회, 『자운대율사』,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2000.
- 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 인하대출판부, 1999.
- 축산문집간행위원회, 『축산문집』, 영축총림 통도사, 1998.
- 축산문집간행위원회, 『금강산유기』, 영축총림 통도사, 1998.
- 한암대종사법어집 편찬위원회, 『정본 한암일발록』 상하, 오대산 월정사, 2010.
- 한암문도회 · 김광식,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2006.

해담치익, 『증곡집』, 대원사, 1934.

이정귀, 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명, 『월사집』 45, 민족문화추진회, 1991.

강석주 · 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김광식, 『탄허 대종사』, 탄허불교문화재단, 2010.

동국대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박설산, 『뚜껑 없는 역사책』, 삼장, 1994.

서남현 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불교사』상, 영축총림 통도사, 2010.

안동성, 『보기출발록』, 을지문화사, 1990.

윤청광, 『영축산에 달 뜨거든』, 노천문도회, 2014.

임혜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자 현,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 불광출판사, 2020.

자현 외, 『석전 영호대종사』, 조계종출판사, 2015.

조환기 엮음, 『참사람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2004.

종걸 · 혜봉,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다카하시 도루(高橋 亨), 『李朝佛敎』, 國書刊行會, 1973.

김경집,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29집, 한국불교학회, 2001.

김경집, 「근대 경운 원기의 교화활동」, 『보조사상』 40집, 보조사상연구원, 2013.

김광식, 「조선불교조계종과 이종욱」,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대각사상』 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방향과 내용」, 『문학과 종교』 22-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7.

원영상, 「난암 유종목의 수행교화와 일본행적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 불교학』 79집, 한국불교학회, 2016.

윤 균, 「근대불교 종단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구하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22.

- 윤창화,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한암선사연구』, 민족사, 2015.
- 이원석,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시기 검토」, 『정도학연구』 28집, 한국정도학회, 2017.
- 이원석, 「한암의 출가 과정과 구도적 출가관」, 『선학』 50집, 한국선학회, 2018.
- 이원석, 「한암스님의 불출동구와 현실관」, 『한국불교학』 92집, 한국불교학회, 2019.
- 이원석, 「한암과 통도사 내원암」, 『한국불교학』 96집, 한국불교학회, 2020.
- 이원석, 「강원도 삼분사 수련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불교학』 98집, 한국불교학회, 2021.
- 최두현,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한국불교학』 101집, 한국불교학회, 2022.
-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영축총림통도사 근현대불교사 학술자료집』, 영축총림 통도사, 2010.
-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 『대한불교』, 『법보신문』, 『불광』, 『불교』, 『불교(신)』, 『불교닷컴』, 『불교시보』, 『불교신문』, 『매일신보』, 『조선불교총보』, 『조선일보』

## Abstract

### The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u-Ha and Han-Am

Lee, Won-suk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 Seoul)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Gu-Ha(Cheon-Bo, 1872~1965) and Han-Am(Jung-Won, 1876~1951) and the interaction among them and their disciples comparing the former period from 1900 to 1910 and the latter one from 1926 to 1951.

Gu-Ha, who was emerging as an influential monk in the former period, acknowledged Han-am staying at the Baekunam and Beomeosa Temple between 1900 and 1902. Han-Am must have known Gu-Ha in the 1900s. Gu-Ha, who had followed Seong-Hae as a Buddhist master in 1900, builded a relationship of Buddhist cousin with Han-Am, who obeyed Seok-Dam as his Buddhist master in Naewonam Hermitage in 1904,05. With this, Two monks regarded the Naewonam Hermitage of the Tongdosa Temple as their common element, but they didn't exchange letters and Sino-Korean poetry. Seo Haedam, Na Cheongho, Kim Gyeongun, Jin Jineung, Park Hanyoung, who met and interact with Gu-Ha, were reviewed in the relationship with Han-Am.

In the latter period in which Han-Am stayed at Mt. Odaesan, the relationship of two monks was advanced but not intimate. Although Han-Am and Gu-Ha exchanged the holy picture of Seong-Hae and Seok-Dam in 1929 and 1934, Han-Am didn't meet Gu-Ha while visiting the Tondosa Temple in 1931. After finishing his secluded life, Gu-Ha played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Headquarter Temple in 1937 and in

the construction of the Jogye Order in 1941. Lee Jongwook, the chief priest of the Woljungsa Temple played a leading role and Han-Am was the first great Buddhist monk of the Jogye Order. Gu-Ha, the third executive chief of the Jogye Order, and met Han-Am again on October, 1949. Han-Am asked after Gu-Ha in the letter to Gyeongbong between 1944 and 1950, and Gu-Ha sent three letters to Han-Am. On May 1951, Gu-Ha, not attending due to his decrepitude, led a memorial service for Han-Am held in the Myosimsa Temple in Busan at 49-ceremony after death, praying his reincarnation. Song Seolwoo and Yun Tweoun were also reviewed who had relationship with two monks.

Meanwhile, Gu-Ha and Han-Am were close to disciples of Mt. Odaesan and Mt. Youngchuksan each. They were Yong-myeong, Wol-ha, Dong-sung, Nam-am, Bo-mun, Tan-heo and Ja-un. The relationship between Gu-Ha and Han-Am was less significant comparing the relationship with Gyeongbong and Han-Am. However, two monk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xchange of two bodies of Mt. Youngchunsan and Mt. Odaesan and on the movement of the Korean Buddhist in the modern period.

### Key words

Gu-Ha, Han-Am, Relationship, Youngchuksan Mountain, Odaesan Mountain, Tongdosa Temple, Sangwonsa Temple, Disciple.